

90년대 중국여성소설에 나타난

아버지 부재와 딸의 성장

- 池莉<你是一條河>, 陳染<私人生活>, 虹影<饑餓的女兒>을 중심으로 -

최 은 정*

<目次>

- | | |
|------------------------|---------------------------|
| I. 들어가면서 | IV. 아버지를 초월한 딸의 새로운 욕망 찾기 |
| II. 아버지를 상실한 딸의 어머니 찾기 | V. 나오면서 |
| III. 아버지를 거세한 딸의 자아 유희 | |

I. 들어가면서

주지하다시피, 문학 안에서 아버지는 혈연적인 의미를 초월한 문화적인 기표로, 사회와 시대의 변천에 따라 의미를 달리한다. 중국현대문학에서 아버지는 권력이자 규율이며 세상의 원리로서 부정과 갈망의 양면성을 가진 존재로 등·퇴장을 거듭해왔다. 신·구가 갈리던 '5·4'시기 아버지는 계몽담론 안에서 봉건적인 가치관이나 제도를 상징하는 코드였다. 계급과 혁명이 중심 담론으로 떠올랐던 30년대와 17년 문학에서 아버지는 정치적 혁명적 색채를 띠게 되는 바, 반(反)계급적이고 반혁명적인 기표로 나타났다. 항전시기, 구국구민의 절대적인 과제 앞에서 아버지는 자식 세대의 모범으로 중국 전통문화 안의 이상적인 품성을 체현하기도 했다. 신시기 문학에서 아버지는 비교적 유형화되었던 전시대와 달리 한층 복잡하고 다층

* 계명대학교 중국어문학과 전임강사

적인 의미를 띠게 된다. 심근소설에서 민족 혹은 개인의 정신적인 뿌리가 되기도 하고¹⁾, 여전히 우매와 낙후의 상징으로 아들 세대의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기도 한다. 선봉소설에서 아버지는 단순히 봉건관념이나 반혁명적인 부호로서의 의미를 넘어서서, 인간을 억압하는 일체의 관념과 제도를 포괄한다.²⁾ 중심이 해체되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문화적 사상적 세례를 고스란히 접하고 있는 신세대 작가들의 붓끝에서 아버지는 어떤 정신적인 상징성이나 일체의 권위를 부여받지 않은, 그냥 ‘인간’일 뿐이다. 이는 곧 관념적인 의미에서의 아버지가 현실적이고 경험적이며 일상적인 아버지로 변모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버지가 어떻게 문학 속에서 재현되는가는 곧 그 당시 자식 세대의 아버지에 대한 시선을 의미하며, 이것은 아버지-자식의 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건이 된다. 아버지가 봉건성, 전근대성, 반혁명성을 상징할 때, 자식 세대와의 대치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³⁾ 쑤통(蘇童)이나 위화(余華)의

-
- 1) 楊經建은 ‘심근(尋根)’을 ‘아버지 찾기(尋父)’로 해석하면서, 정신적인 존재로서의 아버지의 의미를 강조하기도 했다.(〈論中國當代文學的“審父”母題〉, 《文藝評論》 2005年 第5期.)
 - 2) 石萬鵬, 〈父與子: 中國現代性焦慮的語義場〉, 《廣西社會科學》 2005年 第5期.
 - 3) 자식 세대의 아버지에 대한 비판과 이들의 대치는 단순한 세대 갈등을 넘어서서 전통적인 봉건 관념에 대한 비판이자 이에 대한 자식들의 거부이다. 때문에 아버지와 자식의 갈등은 계몽 담론을 표방하고 있는 20년대 중국소설에서 중요한 서사 줄기를 이룬다. 冰心の 〈斯人獨憔悴〉, 馮沅君의 〈隔絕〉, 〈隔絕以後〉, 〈旅行〉 등이 그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馮沅君의 작품은 개성해방을 꿈꾸는 자식 세대와 이를 억압하는 아버지의 갈등에 초점을 둔 전형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봉건사상의 상징으로서의 ‘아버지’는 30년대 소설에서도 이어지게 되는데, 20년대에 비해 자식 세대와의 갈등은 더 첨예하게 나타난다. 20년대의 경우, 아버지는 서사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갖고 있는 권위는 무소불위의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아버지와 팽팽한 대치를 이루기엔 자식 세대의 사상적인 틀이나 줄기가 확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20년대 작품에서 아버지와 자식의 갈등은 주로 아버지에 저항해야만 하는 자식들의 내적인 갈등과 고민에 초점을 두게 된다. 30년대에 이르러 보면, 자식들이 안고 있었던 이러한 부분은 일정 정도 해소가 되는 바, 자식들의 아버지에 대한 거부와 반항이 한층 강화된다. 이는 30년대에 이르러 정치적 계급적 색채가 덧입혀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일부 작품에서 나타나듯, 아버지가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관념과 제도를 상징할 때, 자식들의 아비에 대한 거부와 반항은 한층 더 치열해진다. ‘아버지 심판’에서 진일보한 부자 윤리의 전복은 아버지/자식 서사에서 선봉과 작가들의 기본적인 서사 이념으로 자리 잡았다.⁴⁾ 신세대 작가들처럼, 일체의 권위나 위엄, 엄숙함을 벗어버린 그냥 한 ‘인간’으로서의 아버지가 강화될 때 아버지는 한없이 누추해진다. 그리고 아버지/자식의 관계는 수평관계에서 이루어진다. 본래 수직관계인 아버지/자식의 관계는 윤리의식이나 도덕관념이 기초를 이룬다. 그러나 수평관계로 이동하면서 이러한 요소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다. 90년대, 상업주의, 배금주의의 물결 속에서 인성이 소멸되고 인간관계가 흐트러진 중국 사회의 단면이 아버지/자식관계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중국현대소설에서 아버지의 모습은 다양하게 여러 모양으로 전개되어 오면서, 아버지-자식의 관계 유형 또한 다방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아버지/자식의 관계에서 자식은 아들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시기 소

자식 세대가 혁명 사상으로 무장하면서 ‘아버지’는 봉건적인 가치관이 체현되는 공간에 더해, 반(反)혁명적 반(反)계급적 사상의 공간으로 확대된 것이다. 그래서 20년대 자식 세대의 아버지에 대한 반항과 거부가 문화혁명적인 성격을 띠었다면, 30년대는 정치혁명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丁玲의 <田家冲>, 白薇 <打出幽靈塔> 蔣光慈의 <咆哮了的土地> 등이 그 전형적인 작품이다. 하층민이나 농민들을 묘사한 작품에는 제도나 관념의 희생자로서 아버지의 모습도 나타난다. 이때 아버지는 자식을 억압하는 주체가 아니라 자식과 마찬가지로 외부적인 권위에 의해 고통 받는 객체가 된다. 하지만 아버지는 계급적 정치적 자각을 이룬 자식들과는 달리, 이러한 자각의 대상이 된다. 때문에 이들 역시 갈등 관계를 구성하게 된다. 다만, 통치계급이 보여주는 갈등 관계와는 달리 화해로 나아가면서 아버지와 자식이 함께 성장을 이루는 상승 구조를 나타낸다. 17년 문학의 “혁명역사소설”(黃子平에 따르면 혁명역사소설은 이미 규정된 이데올로기의 틀 안에서 이미 규정된 역사적인 소재를 가지고 이미 규정된 이데올로기의 목표에 도달한다고 정의한다. <青春之歌>, <紅岩>, <保衛延安> 등이 그 전형적인 작품들이다. 《혁명역사소설》(香港, 牛津大學出版社, 1996), 2쪽 참고)에서도 ‘아버지’는 사상적으로 낙후된 혁명의 대상으로 부호화된다.

4) 張文紅, 《倫理敘事與敘事倫理》(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6), 제1장 6쪽.

설에 재현된 아버지는 아들의 아버지일 뿐이고, 아버지의 의미는 왕왕 부자 관계를 통해 도출되고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왜 그러한가. 이는 아버지-아들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가부장제 사회의 관계망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아버지-아들로 이어지는 관계망은 사회의 주체가 남성임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아버지 거부 또는 아버지 찾기는 자연 아들의 시선에서 서술될 여지가 높다. 또한 중국현대소설의 내적인 특징도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30년대 중국소설에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도식화 경향을 나타낸다. 상술했다시피, 중국현대소설에서 아버지는 사회문화적 정치적 기표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부녀관계는 부자관계와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 성별적인 특색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딸의 시각에서 아버지와 딸의 문제에 주목하거나 깊이 있게 파헤치지는 못했다. 게다가 부녀 갈등에서도 어머니가 아버지의 대리인으로 서사 전면에 나타나고 있기에 부녀관계는 모녀관계로 치환되었던 것이다. 80년대 이후에는 ‘가족’을 소재로 한 여성 서사가 많이 등장하긴 했으나, 어머니/딸이 서사의 중심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딸은 자연 홀시될 수밖에 없었다. 남성 서사에서 아버지/아들이 주요 골간을 이루면서 부자 관계가 많은 주목을 끈 것도 아버지/딸이 주목받지 못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아버지/딸의 관계가 비교적 표면에 드러나 있는 것으로 보이는 90년대 여성작가들의 여성 서사가 개인화 서사 또는 욕망화 서사로 대변되어 온 현상도 다른 독해의 가능성을 닫아버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딸에게 있어 아버지의 의미는 어머니와는 또 다르며, 딸이 아버지를 인식하는 경로나 정도는 아들의 그것과도 많은 차이점을 갖는다. 보부아르에 따르면, 딸이 아버지의 우월성을 느끼는 순간 그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을 변혁시켜 버린다고 한다. “아버지가 딸에 대하여 애정을 표시하면 그 딸은 자기의 존재가 훌륭히 정당화되었다고 느낀다. 그녀는 다른 사람이 힘들여 손에 넣지 않으면 안 되는 가치를 남김없이 차지한다.

그녀는 충족⁵⁾되고 신격화된다. 그녀가 일생 동안 이 충일감과 평화를 그리워하여 그것을 추구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이 애정을 거절당한 경우에는, 그녀는 자기에겐 죄가 있어서 벌을 받았다고 영구히 그렇게 느끼는지도 모른다. 또는 자기에 대한 칭찬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자기 아버지에게는 무관심해지거나 적의조차 품게 될지도 모른다.”⁶⁾ 머린 머독은 어린 소녀와 아버지와의 관계 형성은 딸이 어른이 되었을 때 그녀가 맺게 되는 남성과의 관계에 오래도록 영향을 남긴다고 주장한다. 그녀에 따르면 가장 초기에 이루어지는 아버지와의 파트너십은 딸의 성적인 문제나 창의력, 정신적인 경향,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구체화시켜 나가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부녀관계는 딸의 사회생활 뿐 아니라 사생활에서의 자부심, 힘, 권위 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⁷⁾ 이로 볼 때, 아버지와 딸의 관계 유형이 딸의 인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영역이 된다. 때문에 여성정체성의 형성에 주목하는 여성서사에서 아버지와 딸의 서사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아버지가 딸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또 이것이 모녀관계에는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상당히 흥미로운 문제가 된다.

이에 본고는 90년대 여성소설을 중심으로 하여 아버지와 딸의 서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아버지의 부재(현실적인 부재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부재를 포괄한다)를 경험하는 딸들이 어떻게 성장을 모색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둘 것이다. 상술한 대로, 딸의 인격 형성에 있어 아버지의 영향력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일면, 딸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동일시는 가부장제 사회로의 순응이며 이는 곧 주체성에 대한 포기이기도 하다. 때문에 자아성장을 모색하는 딸들의 서사에서 아버지 부재는 성장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90년대 여성서사에서 딸들은 아

5) 중국어 번역본은 ‘她會實現自我’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충족’의 의미는 자아 실현으로 볼 수 있다. 《第二性: II》(北京: 中國書籍出版社, 1999), 332쪽.

6) 시몬 드 보부아르 지음, 조홍식 옮김, 《제2의성(상)》(서울: 을유문화사, 1993), 419-420쪽.

7) 머린 머독 지음, 신광인 옮김, 《영웅의 딸》(서울: 청동거울, 1999), 27쪽.

버지 부재의 이중성에 어떻게 대응하면서 성장을 모색하고 있을까. 츠리(池莉)의 <당신은 한 줄기 강이다(你是一條河)>(1990), 천란(陳染)의 <개인생활(私人生活)>(1995), 홍잉(虹影)의 <굶주린 딸(飢餓的女兒)>(1996)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하여 그 답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상기한 작품들은 여아에서 여성으로의 성장노정을 비교적 면밀하게 그려내고 있는 바, 그 과정에서 아버지 부재가 일어나는 각기 다른 유형들과 이에 대응하는 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들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II. 아버지를 상실한 딸의 어머니 찾기

딸의 자아 찾기가 주요 골간을 이루는 작품에서 나타나는 아버지의 약화 혹은 부재는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법’⁸⁾이 딸의 성장에 미칠 영향을 제어 또는 차단하기 위한 서사 전략이 된다. 하지만 약화된, 혹은 부재하는 아버지에 대한 딸들의 시선을 살펴보면 여기에 한층 더 복잡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냉정하고 혼자임을 즐기는 고집스러운 여자아이 두오미(多米, 林白<一個人的戰爭>)는 세 살 때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상념에 젖어 슬픔에 빠지기도 하고, 메이누(美奴, 迟子建<岸上的美奴>)는 선원인 아버지가 항해를 나갈 때면 독에 나가 아버지를 기다리는 게 중요한 일과이다. 이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계속된다. 천란의 <즈피엔얼(紙片兒)>은 어머니, 외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즈피엔얼의 삶의 편린들을 통해 아버지 부재가 딸의 성장에 끼치는 영향을 표현하고 있다. 병어리이고 잘 웃지도 않는 그녀가 처음 입을 뗀 것은 아버지 또래의 한 남자가 그녀가 사는 마을에 나타나면서부터이다. 그는 그녀를 웃게 하고 그녀를 말하게 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들의 관계를 의심한 조부

8) 자아와 세계는 상호주관적인 관계, 즉 엄마-아이의 관계에서 구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토대는 상징적 질서이다. 이 질서는 가부장적인 질서, 즉 아버지의 법이다.(레나 린트호프, 《페미니즘 문학이론》(서울, 인간사랑, 1998), 148쪽.

가 그를 살해한 뒤 즈피엔얼은 다시 말과 웃음을 잃게 된다. 이 남자를 사이에 두고 일어난 즈피엔얼의 변화는 딸의 잠재의식 속에 자리한 아버지의 자리를 보여준다.

90년대 중국여성서사에서 나타나는 아버지에 대한 딸의 이러한 시선은 부재하는 아버지가 딸에게 있어 성장을 저해하는 문화적 기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한다. 아버지의 부재는 일면 아버지의 법으로부터 자유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부재한 자리에서 딸들은 자유보다는 불안과 공포를 경험하게 된다. “어려서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느낌을 갖지 못했다.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만 했다. 여자애 혼자 커다란 집에 살면서 항시 어둠속에서 언제 출몰할지 모르는 귀신과 맞닥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⁹⁾

딸들이 경험하는 이러한 불안과 공포는 프로이트가 제기한 거세콤플렉스를 연상시킨다. 거세콤플렉스는 남근의 결핍(여아)이나 남근을 제거당할 위협(남아)에서 비롯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권력을 상징하는 남근은 아버지 또는 상징계(사회적인 규범이나 질서)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게 될 때에만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한 가족의 가장이 아니거나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미성년일 경우는 항시 거세콤플렉스에 시달리게 된다. 여아 혹은 여성은 다른 남성에게서 아버지를 재발견함으로써 거세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¹⁰⁾ 아버지 부재의 서사에서 아버지 찾기 서사가 함께 나타나고 있는 이유이다. 츠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의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녀의 <당신은 한 줄기 강이다>는 이에 대해 유용한 분석의 틀을 제공한다.

이 작품은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잃은 똥얼(冬兒)의 가족들이 사회적 정치적인 혼란과 변화 속에서 분열과 방황을 겪는 이야기로, 아버지를 대신해 가족을 이끌어가는 어머니 라라(辣辣)의 지난한 삶의 여정과 그 어머니를 대신하여 어머니 역할을 선택한 어린 똥얼의 성장담이 서사의 두 축을

9) 林白, <生命熱情何在—與我創作有關的一些詞>, 《當代作家評論》2005年 第4期.

10) 엘리자베스 라이트 편, 박찬부 외 옮김, 《페미니즘과 정신분석학 사전》(서울, 한신문화사, 1997) 71-77쪽 참고.

이론다. 이 작품에서 아버지의 부재는 가족들의 혼란한 삶을 유발한 주요 원인이다. 전통적인 가족 제도에서 가족의 존속은 곧 아버지의 존속으로 연결되어 왔기 때문이다. 예기치 못하게 불타 죽은 아버지가 남긴 빈자리는 가족들의 관계를 왜곡시키고 똥얼의 성장을 어렵게 한다.

여덟 살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참혹하게 불에 타 죽는 모습과 어머니의 광기 섞인 비통함을 목도한 후, 똥얼의 어린 마음은 공포심으로 닫혀 버린다. 대신 그녀는 어머니에게로 한층 더 다가간다. 자신이 느낀 공포와 슬픔을 함께 나눌 엄마를 기대한 것이다. 나아가 그녀는 이 집안에서 오로지 그들 모녀만이 서로 돕고 사랑할 수 있는 관계라고 믿었으며, 아버지를 대신하여 엄마와 함께 집안을 꾸려 나아가겠다고 생각했다. 이를 통해 그녀에 대한 어머니의 긍정과 찬사를 기대했던 것이다. 아버지 부재로 인한 거세콤플렉스를 해소할 방안으로 그녀가 어머니를 일종의 대리 아버지로 인식하고, 어머니와의 연대를 택한 것이다.

이런 똥얼에게 있어 죽은 아버지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더 공고하게 만들어줄 매개이며 이들의 유대 관계를 지속시켜 줄 끈이다. 어머니와 그녀의 사이에 아버지를 대신하는 다른 남자의 개입은 곧 어머니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다. 때문에 그녀는 아버지뻘이 되는 다른 남자들의 도움을 주저 없이 받아들이는 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하지도 용납하지도 못한다. 설령 그것이 자신을 포함한 형제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엄마의 교육지책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그래서 똥얼의 마음은 죽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아버지를 배반한 것처럼 보이는 어머니에 대한 미움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는 바꿔 말하면, 똥얼이 거세공포를 해결해줄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품’을 동시에 상실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프로이트는 어린 아이의 이런 상황을 세상에 대한 ‘두려운 낮설음’이라고 설명한다. ‘두려운 낮설음’이란 ‘좋은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거세 공포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 속에 더해, 어머니의 품이 억압된 상태를 말한다.¹¹⁾ 똥얼은 ‘두려운 낮설음’에서 벗어

11) 프로이트 지음, 정장진 옮김, <두려운 낮설음>, 《예술, 문학, 정신분석》(재판 2쇄; 서울: 열린 책들, 2004), 412-452쪽 참고.

날 유일한 방안으로 스스로 어른 되기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똥얼의 스스로 어른 되기는 그녀가 보는 어른들의 세상에 대한 동일시가 아니라, 그것과의 거리 두기 또는 이탈이다. 조숙해진 그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대신, “어린 요물”이라고 못마땅해 하는 어머니의 시선이 그녀와 어른들 세계 사이의 거리를 보여준다. 책과 공부에 대한 똥얼의 욕구는 ‘아버지’의 세계 너머, 어른들의 세계 너머를 바라는 똥얼의 욕망이 가지화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똥얼의 가족과 이웃에게 이것은 사치이기 때문이다. 라라의 표현을 빌자면 그것은 자산계급의 생활방식이다. 그들에게 책은 불쏘시거나 화장실에서 쓸 휴지일 뿐이다. 그러나 똥얼은 어머니가 주워온 책을 보배처럼 여기며 혼자 공부해나가고, 그것을 통해 ‘스스로 어른 되기’를 도모한다. 이는 그녀가 부재하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혹은 기대를 완전히 버렸다는 의미와 상통한다. 그녀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아버지 역할을 했던 왕센량(王賢良)이 무력한 장애인의 모습으로 재등장하는 것도 똥얼과 아버지의 분리를 보다 철저하게 하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나아가 그녀는 애증관계였던 어머니와도 단절을 고향으로써 ‘용감한’ 고아로 재탄생하게 된다. 어머니를 떠나 타지로 나온 그녀는 자신을 고아와 동일시하면서 징성(淨生)으로 개명하는데, 이는 어머니(=아버지) 세상을 벗어나 자신의 세상을 스스로 완성해나간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렇다면, 그녀는 성공적으로 거세공포와 두려운 낯설음을 극복하고 여아에서 여성으로의 성장을 이루었을까. 이후 그녀의 삶을 보면, 아버지 재발견-똥얼에게 있어 이는 대학진학과 결혼이 된다-을 통해 거세공포를 극복하고 비교적 순탄하게 성장을 이루어나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라라의 죽음을 예감하고 악몽에서 깨어난 그녀가 남편에게 똥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그녀의 이름에 담긴 소망처럼 다시 ‘깨끗하게(淨) 태어나는(生)’ 데에는 이르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언젠가는 아들을 데리고 어머니에게 돌아가려 했다는 그녀의 고백은 그녀가 여전히 ‘어머니의 품’을 찾아 ‘두려운 낯설음’에서 떨고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특히, 똥얼이 어머니됨을 통해 자신이 거부했던 어머니 라라를 비로소 이해하고 인정하게

된 것은 아버지를 상실한 딸들의 성장 출로가 어디인지를 가늠케 한다. 어머니로의 회귀.

Ⅲ. 아버지를 거세한 딸의 자아 유희

천란은 의식적으로 아버지와의 거리두기를 통해 아버지 부재를 경험하는 딸들의 세계에 주목한다. 그녀는 딸들에게 작용하는 아버지의 성장장애적인 요인에 더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

아버지

당신은 나를 가로 막았습니다

(중략)

내가 벌써 한참 어른이 되었어도

내 눈동자는 여전히 넘어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그 어두운 그림자를.

부서진 머리를 얼마나 더 치켜 올려야

진정한 남자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창살 잃은 눈빛을 얼마나 더 들어 올려야

푸른 나무가 우거진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출구 없는 길을 얼마나 더 걸어야

더 이상 핏자국 없는 건강한 여인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중략) ……¹²⁾

인용문에서 나타나듯, 천란에게 있어 여성의 진정한 성장은 자신을 가로막는 아버지를 넘어서는 데에 있다. 그런데 그녀의 글쓰기에서 딸에 대한 아버지의 성장장애적인 요인은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다. 다만

12) 陳染, <舞女與她的夢中之門>, 《陳染文集2》(揚州: 江蘇文藝出版社, 1996), 125-126쪽.

딸들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폭력적이고 전체적이며 자신들에게 무관심하다. 이러한 기억은 딸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잔혹함과 이로 인한 자신들의 상처를 가감 없이 드러내도록 유도한다. <무녀와 딸의 꿈속의 문(舞女与她的梦中之门)>의 “나”는 아버지에게 계단 아래까지 굴러 떨어질 정도로 심하게 얻어맞은 기억이 성장 과정 내내 어두운 그림자로 작용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그녀는 “집은 마치 새장처럼 하늘에서 흔들리고, 남자는 마치 나무처럼 마음속에서 흔들린다”¹³⁾고 느낀다. 불안감이 그녀의 삶을 지배했다는 뜻이다. <지나간 일과의 건배(與往事乾杯)>에서도 냉혹하고 폭력적인 아버지로 인해 깨져버린 가정과 그로 인해 여주인공이 받은 상처가 묘사된다. “어린 시절 내내 아버지를 무서워했다. 남자를 대표하는 아버지에 대한 공포심과 아버지의 그림자 안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탓에 나는 부권을 대표하는 모든 남자들을 무서워하게 되었다.”¹⁴⁾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야기된 이성애에 대한 병적인 공포심은 그녀의 성격적 특성-열등감으로 점철된 이상(異常)심리를 구성하는 요인이 된다. 그녀가 행복하고 정상적인 사랑을 엮어가지 못하는 것도 아버지와 의 올바른 관계 형성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천란에게 있어 여성의 성장은 아버지로 인한 트리우마를 어떻게 치유하는지에 놓여 있다. 그녀의 대표작인 <개인생활>은 바로 이러한 각도에서 여성자아의 성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본다.

뉴뉴(拗拗)의 아버지는 오만하고 독단적이며 신경질적인데다가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는 이기적인 사람이다. 그는 뉴뉴가 좋아하는 강아지를 쫓아내기도 하고, 아무 이유 없이 그녀를 키워준 유모 할머니도 내쳐 버린다. 그런가 하면 바깥에서 당한 모든 스트레스와 피곤을 어머니와 그녀를 통해 해소하고자 한다. 그래서 그녀는 일면 아버지를 바라면서도 아버지에게 “기대할 수 없다”는 체념에 젖어 있으며, 아버지가 집을 나

13) 陳染, 위의 책, 124쪽.

14) 陳染, <與往事乾杯>, 《陳染文集1》(揚州, 江蘇文藝出版社, 1996), 9쪽.

가면 비로소 편안함을 느낀다. 갈색 수의를 입은 죄인이 되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가는 아버지에 대한 환상은 아버지로부터의 이탈을 회구하는 그녀의 강한 소망이 배어 있다. 이는 한걸음 더 나아가 아버지의 바지를 갈가리 찢어버리는 행동에서 적나라하게 표출된다. 아버지의 바지는 그녀가 저항할 수 없는 현실의 아버지를 대신하는 매개체이다.

현실의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은 뉴뉴가 세상과 소통하는 것을 막는 요인이다. 그녀는 자신이 외부에 대한 공포 내지는 일종의 심리적인 결핍 때문에 세상과의 진실한 만남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 여기에서 그녀가 느끼는 공포는 ‘두려운 낯설음’에서 이해할 수 있다. 거세공포로부터 그녀를 보호해줄 ‘좋은 아버지’가 부재한 상황에서, 어머니와의 관계마저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약하기 그지없는 어머니는 전제적이고 포악한 아버지의 모습이 형성될 수 있게 만든 한 고리이다. 자연 딸의 성장 모델이 되어 주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녀는 ‘좋은 아버지’를 찾는¹⁵⁾대신 또 다른 ‘나’를 만들어낸다. 이는 몸의 각 부위에 이름을 붙이고 그들과 대화하는 모습으로 구체화된다. 예컨대 팔은 ‘아니오 아가씨’이다. 자신의 머리(생각)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다리는 ‘예 아가씨’이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육체를 대변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손가락은 ‘젓가락 아가씨’이다. 아버지로 인한 피로감이 극도에 달할 때면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의 손가락에 입을 맞추며, 젓가락 아가씨, 우리는 화내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해, 그렇지 않으면 울화통 터져 죽고 말 거야”¹⁶⁾라고 달랜다. 이렇게 그녀는 세상과 타협하는 나와 그렇지 않은 나를 분리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동시에, 그녀는 자매애를 통해 약화된 ‘어머니의 품’을 되살리고자 한다.

15) 뉴뉴의 담임선생인 T선생을 일종의 ‘대리부’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T선생은 뉴뉴의 거세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다. 오히려 그는 그녀의 공포감, 수치감만 더해주면서 외부와의 단절을 촉진하는 매개가 된다. 陳染, <私生活>, 《陳染文集3》, 12-16쪽.

16) 陳染, 위의 책, 11쪽.

그녀에게 있어 그 곳은 과부인 허(禾)아주머니이다. 그녀는 허 아주머니의 집에서만 진정으로 평안함을 느끼는데, 이곳은 아버지가 부재하는, “여인만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이 공간에서 “그녀들이 말을 하지 않고 은어를 사용한다”¹⁷⁾는 사실이다. ‘말’은 아버지의 질서를 나타내는 기표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뉴뉴에게 있어 ‘말’은 온전한 소통 도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그녀는 아버지의 질서를 벗어난 그녀들만의 ‘은어’를 사용함으로써 인식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버지들에게 ‘네’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삶에 대해 ‘네’라고 말하는 것, 이 대답보다 더 의미심장한 부정은 없다.”¹⁸⁾ 현실의 아버지에 대한 거부감이 아버지가 상징하는 일체의 질서에 대한 거부와 전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 세계에서의 자신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뉴뉴는 이를 “제로 여사의 탄생”이라고 이름 붙인다. 모든 것이 가짜인 외부 세상에서 자아 역시 사라지고 없다는 뜻이다. ‘제로 여사’는 아버지에 의해 이름 붙여진 ‘나’는 거세되고, 아버지의 질서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새로운 ‘나’를 의미한다. 그 새로운 ‘나’는 “노(no)”를 말할 수 있는, “강권적인 명령과 공공여론에 의한 명령에 불복하는 용기가 있는”¹⁹⁾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천란은 아버지가 부재하는 세상을 꿈꾸며 딸의 질서를 새로이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아버지 거세를 통해 딸의 자아회복을 도모하는 것이다. ‘제로 여사’는 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제로 여사’가 이른바 ‘미친 여자’로 형상화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길버트와 수잔 구바에 따르면, ‘미친 여자’ 형상은 작가의 분열된 내면이 투영된 것이라고 한다. 즉, 남성중심사회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강한 욕망과 함께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데에서 야기되는 자괴감이 ‘미친 여자’ 형상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는 것이다.²⁰⁾ 뉴뉴와 감정적인 결탁을

17) 陳染, 위의 책, 38쪽.

18) 陳染, 위의 책, 17쪽.

19) 陳染, 위의 책, 229쪽.

20) 원유경, <다락방의 미친 여자들-샌드라 길버와 수잔 구바>, 《페미니즘, 어제

이루었던 허 아주머니, 아버지와 이혼 후 그녀와 동고동락한 어머니를 차례로 거세한 것도 천란이 아버지가 부재하는 ‘여인만의 공간’에서 여성 자아의 온전한 성장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때문에, 미친 여자인 ‘제로 여사’는 의도적으로 이끌어낸 아버지 부재 상황에서 딸의 자아 ‘회복’이 기실 표면적인 ‘회복’이었을 뿐, 내면에는 여전히 아버지에게 구속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기표라 할 수 있다. 어쩌면 이것은 아버지를 거세함으로써 독립을 도모하는 딸들의 공통적인 내면일 것이다. 거세하고자 하는 욕망 내면에 여전히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법 아래에 구속되기를 바라는 딸들이 겪는 딜레마가 숨겨져 있다는 의미이다.

천란이 느끼는 딸들의 이 딜레마는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딸들이 지고 가야 할 짐일 수도 있다. 딸의 성장에 작용하는 아버지 부재의 이중성이 이러한 딜레마를 야기하고 있으니 말이다. 뉴뉴가 안착한 곳이 육조-외부와 단절된-라는 사실은 그 짐의 무게를 짐작케 한다. 뉴뉴가 선택한 자아유희는 스스로 아버지는 버리고 어머니는 상실해버림으로써 고아가 된 딸들이 ‘두려운 낯설음’에서 자신을 구원하는 유일하지만 소극적인 방식일 것이다. 뉴뉴 자신은 이를 자아유희가 아닌 조쇠(早衰)증상이라고 애써 감추고 있지만 말이다. 아버지의 세상과 화해하거나 그 세상 너머의 어떤 것을 욕망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여성)와의 연대에 어떤 희망을 두지도 않는 그녀에게 남아 있는 건 나르시시즘적인 자아, 영원히 세상과 격리된 채 ‘조쇠한 유년’을 응시하고 있는 자아일 뿐이다.

IV. 아버지를 초월한 딸의 새로운 욕망 찾기

홍영의 자전적 소설로 알려진 <끓주린 딸>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는 소녀 “我”(六六)의 이야기이다. 작품의 제목에서 나타나는 “기아”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하나는 물질적인 굶주림.

와 오늘»,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 학회 엮음(민음사, 2000), 93-107쪽 참고.

“기아가 나의 태교였다”는 그녀의 고백에서 나타나듯, 굶주림은 어린 시절 그녀의 그림자나 다름없다. 하지만 그녀가 느끼는 피해의식이나 억압감, 세상으로부터의 움츠림은 비단 물질적인 굶주림의 기억에서 야기된 것만은 아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오는 정신적인 굶주림이 그 큰 부분을 차지한다. 류류의 내면은 자신의 존재가 가족들에게는 잉여에 불과하다는 소외감으로 점철되어 있다. “엄마에게 나는 특별한 아이”였으나, 류류가 느끼는 엄마의 특별함은 “마치 내가 놀러온 남의 집 아이여서 잘못했다고 해도 함부로 나무랄 수도 없는”²¹⁾ 상황이기 때문에 생겨난 특별함이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과 어머니 사이에 잡풀들로 우거진 담장이 가로놓여 있다고 느낀다. 아버지 역시 다른 형제들에 대한 태도와는 달리 그녀에게는 오로지 침묵으로 일관한다. 자신을 다르게 대하는 부모의 태도로 인해 그녀는 자신의 출생이 “본디 이 세상에 나오지 말았어야 하는 처치 곤란한 사건”²²⁾으로 인식한다.

집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마을에서도 그녀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섞이지 못하고 있음을 직감하면서 심한 고독에 시달린다. 소외감은 존재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지고,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한 회의로 인해 류류는 끊임없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자문한다. 열여덟이 되는 해에 그녀는 자신이 사생아라는 사실과 언젠가부터 자신을 따라다니던 그림자가 바로 그녀의 생부였음을 알게 된다. 그런데 생부의 존재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자문하던 그녀에게 자기 존재의 당위성을 제공해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독과 소외감을 가일층 심화시켜 준다.

사실 심하게 왜곡된 모녀관계와 달리, 류류에게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로 기억되고 있었다. 밖에서 일을 하는 엄마를 대신하여 그녀를 키워준 것도 아버지였고, 비록 말을 거는 적은 없지만, 화를 내거나 야단을 친 적도 없었다. 그녀 또한 어른이 되면 다른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실명한 아버지

21) 虹影, 《飢餓的女兒》(北京, 文化藝術出版社, 2006), 8-9쪽.

22) 虹影, 위의 책, 9쪽.

의 눈은 꼭 고쳐주겠다고 결심할 정도로 아버지에 대한 친근감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사생아라는 자신의 신분은 바로 이러한 ‘좋은 아버지’를 잃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게다가 그 아버지를 대체하는 생부는 반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자신의 출생을 표면화하는 기표이다. 따라서 그녀는 생부를 수용할 수 없고, 자신을 키워준 양부에게도 다가갈 수 없는 ‘아버지 부재’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류류가 경험하는 존재에 대한 불안은 거세콤플렉스와 연결이 된다. 사생아라는 사실이 표면화된 것은 그녀가 (공식적으로) 상징계의 바깥으로 밀려났다는 것이며 이는 그녀가 영원히 남근을 소유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생부의 출현이 바로 이를 공식화한 것이다.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며 매몰차게 생부를 거부하는 그녀의 모습은 그녀가 느끼는 거세콤플렉스가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해준다. 극도의 빈곤 속에서 생을 위협당할 수밖에 없는 미성년으로서,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객체인 여성으로서, 윤리적인 잣대가 엄격한 가부장제 사회에서 사생아로서 그녀가 느끼는 소외와 고독은 중층적이 된다.

게다가 그녀는 어머니와의 관계도 왜곡되어 있다. 어머니에게 있어서 류류는 자신의 부정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딸과의 공생친화적인 관계는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류류가 출생에 얽힌 비밀을 알지 못했을 때, 이들의 관계가 어머니에 의해 억압되어 있었다면, 그 비밀을 알게 된 이후 이들의 관계는 류류에 의해서도 억압되는, 즉 쌍방이 모두 동일시를 거부하는 상황이 된다. 때문에 류류는 나날이 높아만 가는 어머니와의 벽을 느끼며 낮설고 두려운 고독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이런 그녀에게 역사 선생님은 자신의 고독을 해소해 줄 일종의 구원이다. 그녀는 삶 가운데 부재한 아버지를 찾고 있었다. 애인 같은 아버지, 자신을 위로할 정도로 나이가 많고, 자신을 이끌어줄 정도의 예지를 갖추고 있으며 자신과 동등하게 감정적인 교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하며,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고 자신을 위해 기꺼이 모욕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²³⁾ 역사 선생님은 반혁명분자로 몰린 아버지 때문에 몰락한 집안 출

신이다. 복잡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친동생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다. 류류가 그에게 동질감을 느낀 것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그 역시 고뇌하고 누군가의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역사 선생님과 감정적인 대등함을 느끼면서 그에게 다가간다. 그러나 역사 선생님은 동생을 죽인 죄로 '학습'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자살하고, 류류는 또 다시 '아버지 부재'에 내몰리고 만다.

결국 “이 세상에 본디 아버지란 없다”²⁴⁾며 아버지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나타낸 그녀. 역사 선생님과 하룻밤으로 인해 생긴 아이를 낙태하기로 결심한 것은 그녀가 아버지(아버지가 규정하고 상징하는 모든 것)와의 결별을 의미하는 일종의 제의라고 할 수 있다. 신음소리 한번 없이 혼자서 수술을 감행하고 자신의 낙태 기록이 적힌 진료 카드를 찢어버린 뒤 병원 문을 나선 그 순간은 그녀가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는 딸들의 세계로 진입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버지 부재로 인한 정신적인 공허는 여전히 그녀를 에워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녀의 유랑의식, 심지어 자기 포기처럼 보이는 무절제한 삶은 아버지의 부재를 알리는 그녀의 선언이 결코 그녀의 자아를 회복시키지 못했음을, 나아가 그녀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음을 설명한다. 아버지와 결별한 딸들이 선택하는 자매애 역시 그녀에게는 구원의 기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류류의 자아는 어떤 통로를 통해 회복될 것인가. 다음을 보자.

갑자기 내 눈 가득 눈물이 솟아나왔다. 억지로 눈물을 삼키려고 애를 썼지만 눈물은 더 이상 내 명령을 듣지 않고 왈각 밖으로 쏟아져 나와 버렸다. 나는 몸이 아파 그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손으로 돌담을 짚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나는 미끄러지듯 돌계단에 주저앉고 말았다.²⁵⁾

23) 虹影, 위의 책, 244쪽.

24) 위와 상동

25) 虹影, 위의 책, 266쪽.

인용한 글은 류류가 더 멀리 떠나기로 결심하고 고향집을 찾아갔다가 어머니로부터 생부의 사망 소식과 함께 생부가 그녀를 위해 남긴 500위안을 건네받은 뒤 아버지에 대한 회한으로 몸부림치는 부분이다. 이후 그녀는 생부의 무덤을 찾아 아버지에게 손을 내민다. 그런데, 류류의 아버지(생부) 수용은 아버지 질서(상징계)에 대한 수용이 아니라는 것에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 그녀에게 있어 아버지 수용은 사생아라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수용이며, 이는 질서(규범)의 바깥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녀가 상징계로 진입하기 위한 방편(다른 사람들과 같게 되는 방편)은 생부를 지우는 것이다. 하지만 생부를 지우는 것은 그녀의 존재, 그녀의 뿌리를 지우는 것이기에 그녀는 줄곧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회의 속에서 자신을 수용하지 못했던 것이다. 때문에 생부의 수용은 이제 그녀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되었다는 의미가 된다.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 질서의 수용이나 진입이 아닌, 초월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아버지의 질서 바깥에 놓인 자신을 수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버지 초월은 동시에 억압된 어머니의 품을 되찾았다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그녀는 한갓 ‘잉여’로만 여겨졌던 자신의 존재에 대해 비로소 웃음 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아버지 초월, 어머니와의 관계 회복 위에서 자신의 존재를 비로소 수용하게 된 그녀는 이제 용감한 고아로 재탄생했다고 볼 수 있다. 여전히 아버지 질서의 바깥에 있는 고아이긴 하지만, 아버지를 욕망하는 대신 새로운 삶을 발견하고 욕망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홍잉은 류류가 발견하는 새로운 삶을 글쓰기에 둔다. 여성에게 있어 글쓰기란 잠재적으로 그녀를 자유롭게 하고, 그녀를 항상 멀리 ‘나아가게’ 하는 행위가 된다. 그리하여 그녀를 위한 새로운 정체성을 창조한다.²⁶⁾ 이로 보자면, 홍잉은 가장 이상적으로 여성자아의 성장점을 도출해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6) 정문영, <타자와 더불어 글쓰기-엘렌 식수>, 《페미니즘, 어제와 오늘》, 위의 책, 157쪽.

V. 나오면서

딸의 성장에서 아버지는 아이러니이다. 성장을 위한 통로이자 장애. 아버지 부재는 딸들에게 불안이면서 자유가 된다. 본고는 츠리, 천란, 홍잉의 작품을 통해 딸의 성장에 작용하는 아버지 부재의 이중성을 고찰하고, 딸들이 이에 어떻게 대응하면서 성장을 모색해나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세 작가들은 각기 다른 아버지 부재의 상황에 처한 딸들의 성장을 조망했다. 츠리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버지를 잃고 아버지 부재를 경험하는 딸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었다. 천란은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거세하여 아버지 부재에 처한 딸이 어떻게 성장을 모색하는지에 주목했다. 홍잉은 아버지를 상실하고 아버지를 끊임없이 찾아나가는 딸이 아버지 거세에 이르게 되는 과정과 그 이후 삶의 여정을 그려내었다. 이 과정에서 작가들은 딸을 중심으로 하여 아버지가 부재한 가족들의 뒤틀린 관계, 특히 모녀 관계의 왜곡에 대해서도 함께 서술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딸의 성장이란 아버지 부재와 ‘어머니의 품’이 억압되어 일어나는 ‘두려운 낯설음’을 극복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세 작가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딸의 성장을 모색한다. 츠리는 아버지와의 분리 및 아버지 재발견을 통해 거세공포를 극복한 딸이 여전히 ‘두려운 낯설음’에 떨고 있음을 보여준다. 딸이 온전한 성장을 위해 넘어야 할 문이 거세문제 해결이 아닌 어머니와의 동일시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천란은 아버지로부터 벗어나지도, 화해하지도 못하고 어머니와의 동일시에도 회의를 품은 채 자아 속으로 숨어버린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딸이기에 피할 수 없는 성장의 딜레마를 자아 유희라는 방식을 통해 소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홍잉은 아버지를 초월하고, 나아가 새로운 욕망을 꿈꾼다. 그 욕망을 글쓰기에 뚝으로써 여성자아의 가장 이상적인 성장 지점을 제안하고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츠리처럼 딸의 아버지라기보다는 가족의 아버지로서

의 의미가 두드러져 보이기도 했다. 딸의 아버지를 강조하다 보니 천란처럼 아버지 거세의 당위성이 다소 약화된 채, 아버지의 전제성과 폭력성만을 문제 삼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작가들의 부녀서사는 아버지-딸-어머니가 구성하는 여성성장의 맥을 짚어봄으로써, 보다 다각적으로 여성자아의 구축과정을 형상화할 수 있었다. 여타 여성성장서사가 의도적인 거세를 통한 아버지 부재를 전제로 하고, 어머니와의 분리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는 것과 구별되는 지점이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에 대한 딸의 복잡하고 다양한 시선들을 세밀하게 고찰하고, 아버지/딸=억압/피억압이라는 도식화된 모식에서 탈피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사회문화적인 기표로 형상화되던 아버지의 의미에서 한 걸음 비껴나, 혈연적인 의미로서의 아버지에 중점을 두고 아버지와 딸의 의미를 다시금 도출할 수 있었다고 본다. 이는 여성성장담에서 홀시되던 부녀서사의 지평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 參考文獻 >

- 池莉, 《池莉文集3》<你是一条河>(南京: 江苏文艺出版社), 1995.
 陳染, 《陳染文集1》(揚州: 江蘇文藝出版社), 1996.
 虹影, 《飢餓的女兒》(北京: 文化藝術出版社), 2006.
 喬以鋼, 《中國當代女性文學的文化探析》(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6.
 王艷芳, 《女性寫作與自我認同》(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6.
 張文紅, 《倫理敘事與敘事倫理》(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6.
 田泥, 《走出塔的女人》(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5.
 시몬 드 보부아르 지음, 조홍식 옮김, 《제2의 성》(서울: 을유문화사), 1997.
 엘리자베스 라이트 편, 박찬부, 정정호 외 옮김, 《페미니즘과 정신분석학 사전》(서울: 한신문화사), 1997.
 레나 린트호프 지음, 이란표 옮김, 《페미니즘 문학이론》(서울: 인간사

량), 1998.

머린 머독 지음, 신광인 옮김, 《영웅의 딸》(서울: 도서출판 청동거울), 1999.

한국영미페미니즘 학회 엮음, 《페미니즘, 어제와 오늘》(서울: 민음사), 2000.

프로이트, 정장진 옮김, 《예술, 문학, 정신분석》(재판2쇄; 서울: 열린 책들), 2004.

<中文提要>

在女性的成長過程中，父親具有雙重功能－為成長的橋梁而障礙。本論文以池莉、陳染、虹影的女性成長故事為例，探討了對女兒成長的父親的作用。三位作家的作品指出了女性的成長在於克服無父與缺母的狀態。池莉關注了失去父親的女兒的成長過程，她認為女兒對母親的認同就是成長的關鍵。對她來說，戀父卻是個女兒要逾越的一種關頭。陳染把目光投向弑去父親的女兒，細膩地反映了她們的內心世界。她筆下的女兒們處於戀父與審父的情感糾葛中，這使得她們陷入自我幽閉的狀態。這表明父親陰影下女兒的無奈，對她們來說對父親的一種消極的反抗模式。虹影也反映了女兒在成長過程中所感到的戀父與審父的矛盾狀態，而她不同於陳染，強調女兒要超越父親而追求新的道路。她在寫作中尋找這一道路。綜的來說，池莉、陳染、虹影的父女故事擺脫了在女性成長小說中以壓抑而禁止為代表的父親文化形象，從血緣的角度重新考慮父親與女兒的關係，由此揭開了女兒對父親的面目各異的觀點。

주제어 : 無父, 女性成長, 對母親的認同, 戀父, 審父, 自我幽閉, 超越父親